익산에서 자율차 달린다

KTX익산역 일원 5개 노선, 국토부 자율주행 시범운행 지정… 첨단 모빌리티 도시 도약

익산시가 자율주행을 기반으로 한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를 활용해 미래 산업을 선도하는 스마트도시로 도약한다.

특히 KTX익산역 중심의 자율주행 서비스로 스마트한 교통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지역산업, 관광 분야와 연계해 도시 경쟁력을 강화할 방침이다.

지난 30일 시에 따르면 KTX익산역과 연계한 노선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로 지정받았다.

지정된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는 총 5개 노선(10.7km)이다. 1구간은 익산역 서부광장~배산체육공원 2.9km, 2구간 익산역 환승장~익산고속버스터미널 1.6km, 3구간 익산역 환승장~원광대학교·병원 3.2km, 4구간 익산역 환승장~전북대학교 2.2km, 회차 노선인 5구간은 익산역 동부광장~역골 주차장 1.6km 구간 등이다.

사업 선정에 따라 시는 내년부터 오는 2026년까지 연차적으로 익산역을 중심으로 배산체육공원, 시외버스 터미널, 대학교 노선을 이동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서비스를 선보일 계획이다.

시는 전체면적의 3.2%에 인구 50%가 거주(약 1만명/㎢)하는 고밀도 압축도시이며 격자형 도로망을 갖춰 자율주행 실증에 유리한 조건을 갖췄다는 평가를 받았다.

열차 운행체계 개편과 서해선 개통, 새만금항 인입철도 신설 등 늘어나는 철도 수요를 바탕으로 KTX익산역에 추진 중인 광역복합환승체계와 자율주행 서비스를 결합해 이용자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또한 다양한 교통환경을 연계한 첨단 모빌리티 서비스 도시를 실현, 자동차 산업을 선도해 지역경제 혁신성장을 이끌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 지정 공모에 KTX익산역 중심의 5개 노선을 신청했으며 국토교통부 서류심사와 실무위원회 심사를 거쳐 '자율주행 자동차 시범운행 지구 위원회' 심의에서 최종 선정됐다.

정헌율 시장은 "인근 지자체인 군산시·완주군과 유기적인 협력으로 미래 자동차 산업을 선도해 상생 발전의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맞춤형 원스톱 서비스 제공돼야"

정헌율 시장, 대한민국 1호 익산 청년시청 현장점검

정헌율 익산시장이 지난 30일 청년정책 허브 기능을 담당할 대한민국 제1호 익산 청년시청 개청의 차질없는 추진을 주문했다.

이번 현장행정은 오는 10일 개청을 앞둔 청년시청 현장을 찾아 청년시청 내 시설 조성 상태 등을 점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익산 청년시청은 옛 하노바호텔을 리모델링하여 1층은 청년들이 편안하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인 북카페, 미니영화관 등 문화 공간으로 운영된다.

또한 2층에서는 진로를 결정하지 못했거나 취업을 준비 중인 청년들을 위해 맞춤형 상담을 진행, 관내 기업과 연계하여 취업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돕는다.

특히 '청년 창업 메카'로 거듭나기 위해 3층 전체를 창업팀 입주 공간인 창업보육실과 크리에이터 활동을 위한 스마트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창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을 지원한다.

이 자리에서 정 시장은 "국내 1호로 조성되는 청년시청인 만큼 취업과 창업 정보는 물론 문화와 복지, 상담 서비스 등 청년 맞춤형 종합행정 원스톱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한다"며 "청년시청이 기폭제가 되어 구도심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 "익산 청년시청은 청년들의 기대가 매우 높은 시설"이라며 "앞으로 청년시청을 찾는 청년들이 시설을 이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인테리어 공사의 마무리와 개청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현장 행정을 마무리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진료비는 내리Go·건강은 올리Go' 사업 추진

군산시, 의료재정 작년대비 1억9500만원 절감

군산시는 지난 30일, 의료급여 수급권자 중 다빈도 외래이용자를 대상으로 지난 6월부터 11월까지 '진료비는 내리Go, 건강은 올리Go'라는 의료재정 절감을 위한 격려품(인센티브)지원 사업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격려품 구성은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자가 건강관리능력 향상을 위해 '라텍스 스트레칭 밴드, 손 지압기, 종합 비타민'을 넣어 제작했으며 전년 대비 진료일 수, 진료비(기관부담금), 의료기관 이용 수 중 한 항목이라도 절감 효과가 있는 대상자를 선정해 두 차례(10월, 11월) 격려품을 전달했다.

이번 격려품 지급사업 대상자로 선정된 의료급여 수급자는 동일상병으로 여러 의료기관 방문, 약물중복 처방 등 비합리적 의료 이용에 따른 의료급여 사례관리가 필요한 대상자 중 선정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6개월 동안 의료급여 수급권자 50명을 대상으로 개인별 맞춤 건강상담과 합리적 의료이용 유도, 복약지도, 정서적 지지 등을 실시해 전년 대비 진료일수(1월부터 10월까지) 6만3,621일→6만5,737일(7,884일 감소), 진료비(기관부담금) 6억4,700만원→4억5,200만원(1억9,500만원 감소), 의료기관 이용 수 1,171개소→948개소(223개소감소)로 절감하는 성과를 나타냈다.

고석권 복지정책과장은 "내년에도 유형별 맞춤 사례관리를 추진하여 의료급여 수급권자의 특성에 맞는 다양한 특수시책을 개발하고,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의료급여제도 안내, 의료이용 정보제공, 건강상담을 시행하여 수급자의 삶의 질 향상에 더욱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는 지난 2007년 2월부터 간호사 자격과 의료기관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을 가진 의료급여관리사 5명(공무직)을 채용해 삶의 질 개선과 의료급여 재정 안정화에 기여하기 위한 의료급여 사례관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 버스 지·간선제 시민 불편 최소화 총력

익산시가 버스 노선을 추가 배차하는 등 지·간선제 시행으로 인한 시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시범운영 기간을 연말까지 연장한다.

특히 시는 현재까지 발생한 민원을 종합해 효율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하는 등 보다 안정화된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총력을 다하고 있다.

먼저 운행 횟수 감소로 다수 민원이 발생한 3330(함열~용안~강경) 버스, 시간 변동으로 출퇴근 및 통학 관련 민원이 발생한 5491(학선·황등), 5501(양촌·용동) 5480(법성·성당포) 버스는 추가로 배차해 불편을 최소화한다.

또한 현재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되고 있는 수요응답형 버스는 수요 대비 배차가 장기화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운영시간을 오후 1시부터 4시로 축소하고 기존 노선제 운영을 확대할 계획이다.

변경된 사항은 12월 3일부터 적용된다.

이어 시는 지·간선제 시행으로 인한 불편 사항에 대해 민원처리대장을 관리하고 시민불편신고센터(☎859-5570,5975)를 운영해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한다.

이를 토대로 탄력적이고 효율적으로 버스를 운영해 지·간선제가 안정화되도록 힘쓸 방침이다.

앞서 시는 환승장 환경 개선의 일환으로 벤치와 쉘터 등 편의시설 설치를 완료하고 승객들이 안전하게 대기하며 버스에 탑승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이 지·간선제 시행으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의견수렴을 하고 즉각적인 대응을 통해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 기자

강임준 군산시장, 직원들과 소통의 시간 가져

강임준 군산시장이 조직 내 세대 간 소통·공감 행정을 위해 직원들과의 격의 없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군산시는 지난 29일 강 시장이 직원들과 함께 소통의 대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10년 이상 근무한 직원들과 함께 간단하게 저녁 식사를 하면서 시민으로서 시정에 대한 아쉬움, 업무추진 아이디어, 사내 복지를 통한 자기계발 등 다양한 의견을 자유롭게 이야기 했다.

이번 행사는 '당신과 나, 서로에게 귀 기울이기'라는 주제로 시장과 직원들 간의 소통과 공감으로 행복한 직장 분위기 조성을 위해 실시됐으며 지난 2021년부터 분기별로 추진하고 있다.

참여한 한 직원은 "평소 어렵게만 느껴졌던 시장님과 한 시간 동안 담소를 나누며 거리감이 없어졌고, 직원들을 생각하는 마음 또한 느낄 수 있어 좋은 시간 이었다."며 "시장님과 직원들의 소통 시간이 자주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강 시장은 "직원들의 얘기를 들으며 행정 일선에서 일하는 직원들의 고충도 알게 됐고, 고충이 있으면 시장에게 부담을 갖지 말고 언제든지 대화를 요청하면 눈과 귀를 열고 경청하겠다"고 전했다.

/군산=김판곤 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생활형 민방위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군산시는 오는 12월 5일부터 15일까지 민방위 대원을 대상으로 생활형 민방위 심폐소생술(CPR) 교육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시는 최근 이태원 참사 및 각종 사고 발생으로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의 중요성이 증대되며 일상생활 속 심정지 환자 발생 등 비상시 민방위 대원들의 초기 응급대처 능력 향상을 위해 교육을 추진한다.

이번 교육은 시 민방위 상황실(지하)과 읍·면·동 4개소에서 민방위 대장 및 대원 대상으로 9회에 걸쳐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응급상황 시 심폐소생술(CPR), 자동 제세동기(AED) 사용법에 대해 교육용 마네킹(애니)을 활용한 실습 위주로 진행할 계획이다.

/군산=김판곤기자

군산시보건소, 자살예방 '마음안내판' 설치

군산시보건소는 30일 자살 고위험군 지역의 공원과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에 고보조명과 안내판을 설치해 군산시민의 정신건강 및 자살예방 증진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 2018년부터 시 정신건강복지센터는 군산경찰서와 협조해 자살고위험 취약지역에 9개의 고보조명과 5개의 안내판을 설치했다.

고보조명이란 건물 벽면, 길거리 바닥, 천정과 같은 원하는 장소에 빛을 투사하는 조명을 뜻한다.

보건소는 12월 중으로 기존 설치한 고보조명과 안내판을 점검 보완하고, 추가 지역에 고보조명과 안내판을 설치해 자살 고위험군 지역에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등 생명의 빛을 비출 다양한 메시지 전달을 추가로 추진하고 있다.

또 보건소는 군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와 함께 자살예방을 위한 환경 조성을 위해 24시간 자살예방상담 전화 홍보, 농약안전 보관함 설치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군산=김판곤기자